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CROSSROADS,
Building the resilient city
2021.09.16→10.31

2021 서울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4)

지금 우리는 급속한 성장과 무분별한 도시 개발 시대를 지나, 느리지만 지속적인 성장의 시대 그리고 포용성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전히 대량 공급되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있지만 동시에 각자의 다른 삶을 반영하는 공간, 동네 건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과 가치 공존의 시대에 우리는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대면했다.

- 도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지금 도시에 필요한 철학과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고려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 식의 관점과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서울비엔날레 안에서 서울과 세계 도시, 시민, 전문가와 행정 기관, 도시건축 분야 및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제안하면서 새로운 도시건축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와 공유를 시작하고자 한다.

We have passed the age of rapid growth and reckless urban expansion and have now entered the era of slow, sustainable development, driven by the need for inclusivity. Although there is still a strong desire and demand for mass-developed real estate, there has also been a renewed interest in the neighborhood-oriented spaces and architecture that reflect the diversity of our lives. In this moment of transition and the coexistence of values, we are faced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cities:

- How should we understand cities?
- What kind of philosophy and approach are currently necessary for cities?
- What must be considered and remember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cities?

The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Seoul Biennale) seeks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Within the

- 왜 서울인가?
서울은 2000년 역사도시이자 1000만 인구의 메가 시티로 대도시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서울은 급속한 도시 성장의 과제를 안고 도시건축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인간 중심의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 왜 도시건축인가?
건축은 인간의 다양한 생활을 기술 구조 등을 이용하여 담아내는 공간예술이며, 따라서 도시는 건물의 집합이 아닌 인간생활 공간의 집합으로 그 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인 문명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 왜 비엔날레인가?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전시, 행사로 국제교류와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따라서 세계 도시의 현안을 살피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에는 비엔날레 형태가 적합하였다.

Seoul Biennale, we would like to initiate the discussion and begin sharing the new paradigm of urban architecture with Seoul and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by involving citizens and experts and global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among many others.

- Why Seoul?
Seoul has a rich history that spans 2,000 years and displays all the elements of a metropolis with a population of 10 million. Seoul is now facing a turning point in its urban and architectural paradigm of balancing the task of rapid urban growth with the ideals of a new human-centered city.
- Why Architecture & Urbanism?
Architecture is a spatial art that encompasses all aspects of life through the means of technology and structure.

(5)

세계적으로는 건축을 다루는 베니스, 시카고 비엔날레 등이 있다.

The city is not merely a collection of buildings, but a collection of spaces that embraces the diversity of our lives. Architecture and urbanism reflects the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our society, and thus carry within them the holistic value of an entire civilization.

- Why the Biennale?
A biennale generally refers to a large-scale international exhibition event that happens every two years. Therefore, a biennale is the perfect vehicle for international exchange to examine present issues and seek alternatives with cities around the world. Well-known architecture biennales include the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the Chicago Architecture Biennale.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구성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작가와 작품이 아닌, 주제와 제안의 비엔날레이다. 서울비엔날레는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연구와 콘텐츠 개발의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비행사년도, 그리고 비엔날레 행사년도에 선보일 전시 부문의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회 주제를 기반으로, 전시 부문은 주제를 다각도로 해석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주제전과 세계 도시들의 선도적인 공공 프로젝트들을 선보이는 도시전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스튜디오, 현장프로젝트, 강연 및 포럼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주 전시장과 프로젝트 현장

서울 역사 도심 동쪽 관문에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서울 도심의 중심지인 옛 국제청 별관 자리에 지어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2021 서울비엔날레

• Framework of Seoul Biennale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is not about artists and their work, but about issues and suggestions. As a biennale event, it comprises two major pillars: Biennale exhibitions during the on-year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during the off-year. The exhibitions include Thematic and Cities Exhibitions, which shows the most innovative initiatives occurring in cities around the world, as well as Global Studios, Live Projects, lectures and other programs that invite public participation.

• Venues and S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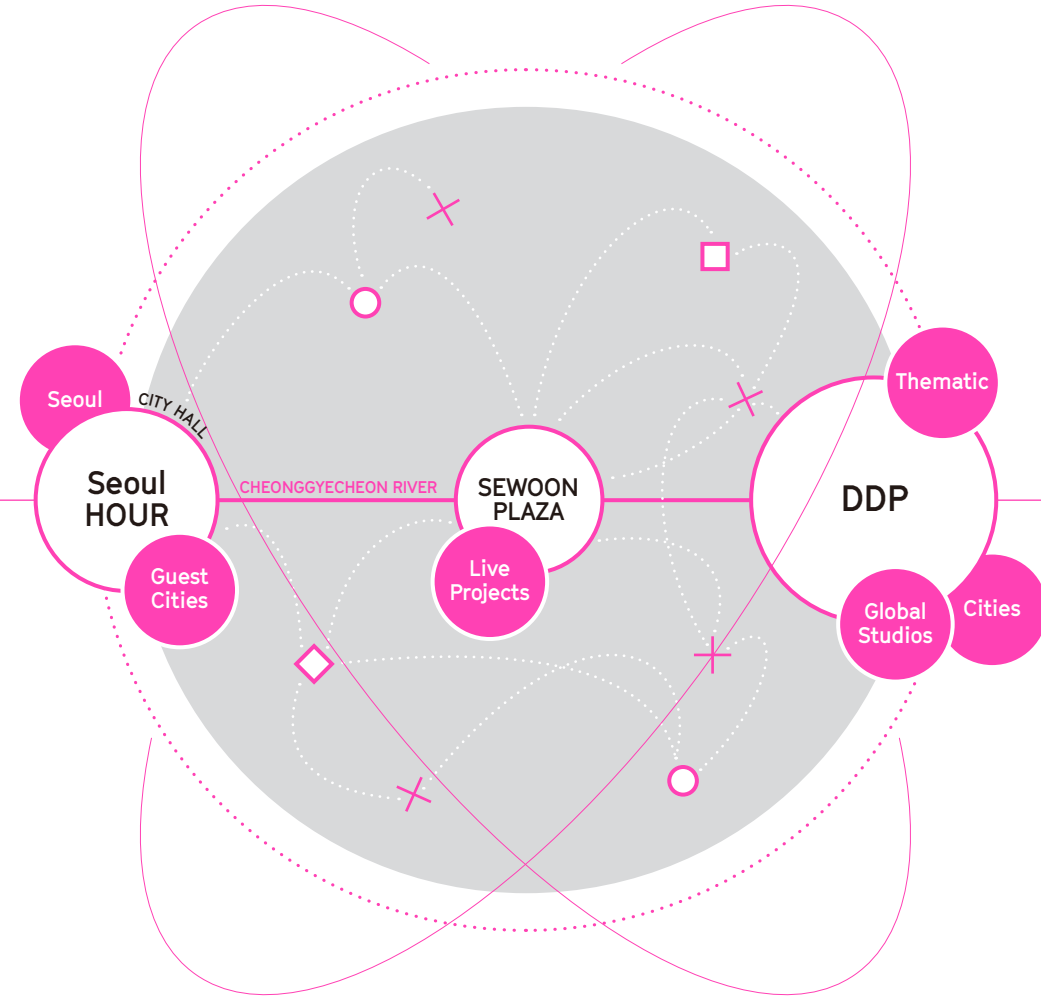
The Main venues of Seoul Biennale 2021 are the Dongdaemun Design Plaza(DDP), located by the historic eastern gateway of Seoul, and the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Seoul HOUR), built on the site of the old National Tax Service Annex at the

heart of Seoul. DDP is the world's largest 3D amorphous structure designed by Zaha Hadid, and served as the main venue for Thematic and Cities Exhibitions in 2017 and 2019. The Seoul HOUR opened its doors to citizens in 2019 as a public space embracing modern history as the first-ever spatial platform for urbanism and architecture in Korea. These venues, which carry Seoul's history of urban transformation, represent urban development of the past and present Seoul. Along the axis connecting the two venues is the Sewoon Plaza that is the site of Live Projects.

•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날짜 : 2021년 9월 16일-10월 31일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일대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Date : September 16–October 31, 2021
Venues : Dongdaemun Design Plaza(DDP),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Sewoon Plaza



서문 Introduction

도미니크 페로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Dominique Perrault
General Director,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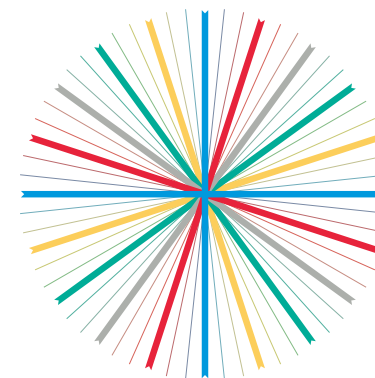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현대 기술 문명의 논리와 기능을 시험하고 그 본질의 유효성에 관한 생각을 뒤흔든 범세계적 팬데믹의 여파에 맞서 그 막을 올린 첫 국제 건축 행사 중 하나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변화는 분명히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쩌면 더욱 융합적이고 유연한 공간의 탄생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현재의 위기는 그동안 꾸준히 비판을 받아 온 근대 건축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이념의 쇠락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미래의 전조일 것이다.

세계 문제의 핵심이 되는 도시는 현재 위생상의 위험, 기후 변화, 산업 감소, 기술 경쟁력, 이주 흐름 관리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그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세계 100개의 도시 프로젝트와 그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발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대중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상응하여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회복력’이라는 주제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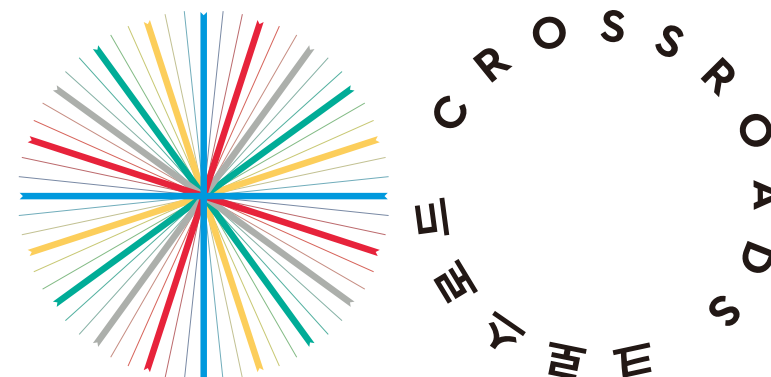
The third edition of the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is one of the first architectural events produced in the aftermath of a pandemic that has profoundly challenged the functioning of our modern, technological civilization. These transformations will certainly have an impact on the way we organize our living spaces, perhaps in favor of more hybrid, even a-programmatic architectures. This crisis is probably the harbinger of the end of the much-criticized “form follows function” leitmotiv of modern architecture.

Cities, at the heart of global issues, are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sanitary risks, climate change, industrial declin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management of migration flows. The Seoul Biennale offers the public a platform for exchanging and discovering experiences and projects carried out in more than a hundred city and metropolis projects around the world

바람장미 Windrose



(9)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축·도시계획·예술·디자인을 통한 도시 탐구를 이어나가며 잇따르는 일련의 전시와 행사를 통해 서울비엔날레는 미래 도시에 대한 실천적 사고를 개방한다. ‘도시 회복력’이라는 개념은 캐나다의 생태학자 C. S. 홀링이 정의한 ‘생태 회복력’에서 유래되었는데, 문자 그대로 충격 이후 균형을 되찾는 힘, 혹은 어떠한 난제를 그 영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복력을 도시에 적용해 예측 불가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자 한다. 회복력은 지속가능성, 즉 환경과의 재결합에 이르는 과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며, 복잡하고 유연하며 민첩한 체제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도시적 이상이다. 회복력의 개념을 건축을 통해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전문 지식, 자원, 도구 등이 있을까?

도시계획가들에 의해 자원과 기능의 효율성과 합리화에 기반하여 최적으로 설계된 도시와는 반대로

오늘날 가장 회복력 있는 도시 공간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춰진다. 지금은 도시의 획일화된 비전에서 탈피하여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분리되었던 지역들을 서로 연결하며 교류와 소통의 관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한 때이다. 인류가 처한 현재의 위기는 우리가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 대해 재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새로운 결합과 결속을 구성함으로써 더욱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가, 건축가, 개발자, 건축업자 및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건축설계와 도시계획의 기반이 되는 대화 그리고 전문 지식과 접근 방식의 상호 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적 도시가 대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읽어 내고, 새로운 유형의 건물과 기반시설에 얽힌 혁신을 이해하며, 새로운 사회관계 및 설계 과정을 구현하고, 이에 따라 공유와 상호화로 정의되는 현대적 도시성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부디

to address such challenges in preparation of an uncertain future. This is why I thought it was right to place this edition under the theme of resilience.

Entitled “CROSSROADS, Building the Resilient City”, the Biennale continues its exploration of cities through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rt, and design by highlighting the virtues of dialogue and the crossroads of knowledge. It aims to open up, through a series of exhibitions and events, a thinking in action on the city of the future. The concept of urban resilience derives from the concept of ecological resilience, defined by the Canadian ecologist C.S. Holling. Literally, it refers to the ability to regain a balance after a disruption, to overcome an ordeal by adapting to limit its impact. By applying resilience to the city, we focus on making the city more robust against unexpected situations. Resilience is also a necessary condition for sustainability, a

process that leads a reconnection with the environment, a new urban ideal conceived as a complex, flexible, and agile system. What kind of expertise, resources and tools do we have to envisage resilience through architecture?

In contrast to the optimal and functional city of planners, designed in terms of efficiency and rationalization of resources and functions, the urban spaces that are the opposite appear today as those that allow the most rapid and effective adaptation, therefore the most resilient. It is urgent to go beyond a standardized vision of the city, to discover its unknown areas, and to bring together places that did not speak to each other. The current context forces us to rethink the city and architecture by creating new links and combinations to enable urban planners, architects, developers, builders, and inhabitants to work together for the creation of a more sustainable city.

이번 행사가 고무적인 경험으로서 관객들 스스로 의문을 품고 탐구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분리하지 않고 화합하며 성찰의 장을 모으고 융합함으로써 상호작용의 창조력을 구현해내어 궁극적으로 건축의 한계를 넓히는 새로운 형태의 물리적 연결망이 이번 비엔날레에서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Through this edition, I am asserting the importance of dialogue, of cross-fertilization of expertise and approaches, as a nourishing ground for architectural design and urban planning. They allow us to grasp the transformation of historic cities into metropolises, the innovations linked to new types of buildings or infrastructures, the new social relations and design processes, and thus the creation of a contemporary urbanity of sharing and mutualization. I hope this event will create an opportunity to question, discover and be nourished by a multifaceted, rich, and inspiring substance. I wish for a Biennale that does not separate but brings together, assembles, and merges the fields of reflection, and manifests the creative force of interactions, creating a new type of physical network expanding the limits of architecture.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ONGDAEMUN DESIGN PLAZA

주제전
도시전
글로벌스튜디오

Thematic Exhibition
Cities Exhibition
Global Studios



주제전 Thematic Exhibition

도미니크 페로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전 큐레이터

Dominique Perrault

Curator of Thematic Exhibition,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14)

과연 산업·생활기반 시설이 도시 복원력의 잃어버린 연결고리인가? 인프라가 대도시의 기능적인 면에서 얼마나 필수적인지 감안할 때, 이 질문은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 도시의 복원력은 효율성과 적응성 측면에서 네트워크(교통, 전기, 수도, 가스, 정보)와 인프라(교량, 도로 및 철도, 주차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은 복원 전략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간주된다. 그 목표는 도시 체제를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위험과 변화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생활기반 시설은, 진부화로 인한 경제 및 영토 붕괴, 대기 및 토양 오염, 도시 방임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때때로 많은 도시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순전히 기능적인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이 구조적 비(非)적응성은 인프라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코로나19는 일부 시설의 부족한 융통성을 화두에 올렸지만 또한 새로운 적응 능력을 확인할 수

Is infrastructure the missing link to resilience? This question may appear surprising, given how essential they are to the functioning of metropolises. The resilience of cities is clearly and increasingly dependent on the efficiency and adaptability of their networks (transport, electricity, water, gas, information) and their infrastructures (bridges, road and rail structures, car parks). They therefore naturally seem to play a central role in any resilience strategy, the aim of which is precisely to make any urban system robust enough to absorb risk and change, in short or long term.

However, infrastructure is often seen as the source of many urban issues: economic and territorial disintegration due to obsolescence, air or soil pollution, costly transformations leading to urban neglect. Designed to meet a unique and purely functional need, their structural non-adaptability makes them particularly vulnerable. However, while the Covid-19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사람들이 떠나버린 경기장, 넓은 주차장 등의 공간에서 선별진료소와 백신 접종 센터를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이 인프라를 도시의 적응력 있는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도시 복원에 있어 기술자들이 선구자였던 많은 전례들이 있다. 그렇다면 건축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대도시 개발에서 인프라의 중요도는 이제 장기적 진화를 목표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하고, 고밀도 및 고부가가치 도시 지역의 제한된 공간에 대한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도로, 원형 교차로, 지하 주차장 등, 각 인프라가 국가 및 사회적 유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그 장소만의 도시적 본질을 창조하고 변형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대 건축이 마주하고 있는 근본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가는 설계와 공간디자인에 대한 그들의 노하우를 십분

pandemic has made visible the lack of flexibility of some facilities, it has also allowed opportunities to identify new capacities or adaptation: many deserted stadiums or car parks have been able to quickly host testing or vaccination centers. How can architecture transform infrastructure into an adaptive resource for the city? While engineers have often been pioneers in urban resilience, what role can architects play in these processes?

At the heart of metropolitan developments, the importance of infrastructure is now being reinforced by a longer-term evolution, linked to the optimization of uses in the limited space of high-density and high added-value urban areas, combined with a need for adapted sustainable solutions. On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now seems to be based on the need to consider any context—a road infrastructure, a traffic circle, an underground car park—as a heritage

(15)

발휘해 기능적이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시설들을 다원적이고 활기 넘치는 건축물로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2021 서울비엔날레의 “건축 × 인프라” 주제전은 이 두가지 영역의 명확한 분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오늘날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의 융합에 대해 논의한다. 이 전례 없는 협업은 기존의 닫혀있던 시야를 열어주며 21세기 도시화로의 다양한 방향을 제시한다. 진부화와 취약성에 대한 관리 대책은 도시재생을 위한 흥미로운 접근으로 그 어느 것,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연결망을 활성화시키는 가능성으로 여겨진다.

element to create, transform, and activate the urban essence of any site. In this process, architects can play a key role, through their know-how in programming and spatial design, to transform infrastructure, functional yet silent to its environment, into architecture that is plural, lively, and open to the city.

Entitled “Architecture × Infrastructure”, the thematic exhibition of the Seoul 2021 Biennale questions the apparent separation of these two territories and argues for their fusion as a way to produce a resilient, responsible, aesthetic, and sustainable response to today's urban challenges. This unprecedented partnership opens up perspectives and feeds the possible directions of 21st century urbanization. It considers the management of obsolescence and vulnerability as an exciting opportunity for the regeneration: the possibility of activating a new type of urban network that does not leave anything or anyone behind.

도시전 Cities Exhibition

도미니크 페로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전 큐레이터

Dominique Perrault
Curator of Cities Exhibition,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15)

근대의 도시화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완수된 바 있으며, 이러한 안정된 체제 아래 우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이번 비엔날레의 도시전은 도시의 특정 장소들을 지속 가능한 세계의 전망을 창조하는 핵심 공간으로 지정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역할에 대해 탐구한다. 이에 차세대 건축가와 도시 설계자가 환경, 자원, 보안, 주거, 서비스, 인프라 등, 복합적 문제에 맞설 해결책을 제안한다.

도시전은 “크로스로드”라고 칭한 다섯 가지 소주제를 통해 도시의 생산 활동에 관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 도시계획을 다루는 크로스로드1: 지상 × 지하
- 건축을 다루는 크로스로드2: 유산 × 현대
- 생산과정을 다루는 크로스로드3: 공예 × 디지털
- 환경을 다루는 크로스로드4: 자연 × 인공
- 도시적 배경을 다루는 크로스로드5: 안전 × 위험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는 타당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접근방식과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미래를 재고해보아야 한다. 지하는 지상으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유산 가치가 배제된 현대 건축물은 영민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시 공간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산 방식은 진화하였지만, 전통 기술의 지혜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 도시 내의 자연환경 구성은 오히려 인공적인 경관을 자아낼 수 있으며, 위험에 대한 정밀한 이해 없이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이 다섯 가지 크로스로드로 구성된 도시전은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도시를 탐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와 자연, 전통과 현대, 지상과 지하,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의 연결고리를 재정비함으로써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상상을 가능케하고, 또한 신념과 가상, 현실과 이상을

- CROSSROADS 1, on urban planning:
Above × Below
- CROSSROADS 2, on architecture:
Heritage × Modern
- CROSSROADS 3, on production processes:
Craft × Digital
- CROSSROADS 4, on the landscape:
Natural × Artificial
- CROSSROADS 5, on the urban context:
Safe × Risk

The current context requires us to rethink the future by combining approaches and skills to provide relevant and fair responses—the underground cannot exist in an autistic relationship with the surface; contemporary constructions cannot be intelligently and sustainably inserted into urban space without integrating the existing value of heritage; the production methods are being transformed thanks to digital technologies, but cannot deny the value of

(17)

융합시키며 프로젝트에 등장한 장소들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탐구를 해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논리만으로 도시를 지을 수 없다. 20세기에 그리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미래가 불확실성을 내포한 채 건축의 인본주의적 차원으로서의 회귀를 암시한다.

traditional know-how; the introduction of nature into the city often implies a totally artificial design of the landscape; security cannot be conceived without a fine understanding of the risks.

These five “CROSSROADS” offer an exploration of the world’s cities through projects developing specific initiative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design, or urban planning. Projects that contribute to re-imagining the future of our cities, by tightening the links between city and nature, old and new, above and below, human and non-human. They combine conviction and imagination, realism and idealism, and allow u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specific sites, expressed through strategic, open, and inspiring scenarios. We can no longer build the city with a single logic. Contrary to what was envisioned in the 20th century, the future seems to incorporate the uncertainty, a return to a humanist dimension of architecture.

글로벌 스튜디오 Global Studios

건축공방

(심희준, 박수정)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글로벌 스튜디오 큐레이터

ArchiWorkshop

(Hee Jun Shim, Sujeong Park)

Curators of Global Studios,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18)

글로벌 스튜디오의 전시는 “피난처”라는 주제를 탐구한다.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의 출현을 촉발시킨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도 한 피난처. 이에 대한 발상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환경 붕괴, 주택 부족, 군사 충돌이나 정치 혼란으로 야기된 난민 등 보다 넓은 범주의 인도주의적 재난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디자이너와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일차원적인 피난처 제공과 기본 욕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넘어, 디자인은 정치적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전 세계에 위치한 41개 기관의 건축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글로벌 스튜디오 전시에 참여했다. 2020년 가을, 각 기관별로 진행된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이들은 각각 안전과 회복력의 공간으로서 ‘피난처’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제안한다.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된 8개의

Global Studios Exhibition explores the theme of “refuge.” Refuge is a basic human desire to protect oneself from surrounding threats that triggered the emergence of architecture. This concept has constantly drawn attention, linked not only to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but the humanitarian disasters to a broader extent, including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collapse, housing shortage, refugee crises caused by military conflicts and political turmoil. What is the agency of designers and architects at times of such crises? Beyond serving the elementary functions of providing a shelter and fulfilling basic needs, is design able to take on a political role?

To answer those questions, architecture students from 41 institutions worldwide have participated in the Global Studios Exhibition. Through studio projects conducted by each organization in 2020 fall, they suggest adaptive strategies for various threats that

작업물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지하 2층에 위치한 글로벌 스튜디오 전시공간에서 실물 크기로 설치되어 시민들이 직접 그 공간을 점유하고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국가간 자유로운 방문이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소통과 작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전시의 진행과 구성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위기에 대처하는 소통 방식의 실험 과정이 된다.

오늘날 많은 위기들이 인류를 크로스로드, 즉 기로로 내몰고 있다. 위기를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더라도 건축과 도시계획이 인류와 환경간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건축과 도시계획은 정치·사회적 결정을 능동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글로벌 스튜디오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차세대 건축가와 디자이너 세대의 움직임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도미니크 페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humanity is currently facing by interpreting the concept of refuge as a place of safety and resilience. The eight works selected through an open call are installed in the Global Studios Exhibition space, located on the second basement floor of the Seoul Dongdaemun Design Plaza (DDP), at a 1:1 scale for the audience to occupy and experience the sites. As all communication and work are carried out online with the limited international travel due to the pandemic, the execution and organization of the exhibition themselves become a simulation of communication methods in response to the crisis of a new era.

Today, numerous crises threaten to drive mankind to a crossroads.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cannot solve the crises themselves; however, they take on a crucial role in proactively shaping socio-political decisions by building an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mankind and its environment.

(19)

Through this exhibition, Global Studios aim to promote the movements of the new generation of architects and designers who act politically. As Dominique Perrault, the General Director of the Seoul Biennale 2021, has declared, “we cannot afford not being political anymore.”

서울도시건축전시관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게스트시티전
서울전

Guest Cities Exhibition
Seoul Exhibition



게스트시티전 Guest Cities Exhibition

최춘웅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게스트시티전 큐레이터

Choon Choi

Curator of Guest Cities Exhibition,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22)

현재 인류는 기로에 서 있다. 기계화와 산업화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를 야기했고, 거대한 도시 개발 과정의 여파는 도시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현상은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일상의 패턴까지 바꾸고 있다. 과연 인류는 지금까지 유지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할 수 없는 종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지구를 치유할 것인가?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게스트시티 전시는 “미래”의 화두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도시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공공과 민간, 도시와 건축 사이를 넘나들며 주요한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개발프로젝트로부터 도시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재생을 유도하는 제도와 합치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전시물을 선보이고자 한다. 게스트시티 전시는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건축가, 행정가, 디자이너, 학자,

Humanity is at a crossroads: mech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brought about irreparable changes in climates. The aftermath of urbanization has ushered in a transformation that is not only limited to an urban scale, but also extended to a planetary scale. These phenomena have disrupted everything from ecological balance to the patterns of our daily lives. At the crossroads of the Anthropocene, will humanity merely aim to slow down the destruction by upholding our established lifestyles? Or are we going to restore our planet by accepting innovative yet fundamental changes?

Under the subject of “Future”, the Guest Cities Exhibition of the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presents the desired future of various cities, including Seoul. Exploring the boundar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city and architecture, the exhibition features multiple works covering the principal urban infrastructures, local

학생, 그리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도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 미래의 모습을 새롭게 그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래는 지적인 학습의 대상이 아닌 상상의 영역이다. 누구나 각자의 미래를 꿈꾸고 상상할 수 있으며 모든 견해가 유효하다. 따라서 미래는 묵묵히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는 자들의 것이 아니며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그 모습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며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자들의 것이다. 게스트시티 전시는 특히 서울이 제공하는 영감과 교훈을 통해 세계의 도시들이 지속가능하며 생명력, 회복력을 갖춘 미래의 도시를 구상하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innovative policies that promote sustainable changes and regeneration of the city. The Guest Cities Exhibition focuses on creating an opportunity for architects, administrators, designers, scholars, students, and leaders to come together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city in order to reimagine its future.

The future is not an object of intellectual learning but a territory of imagination. Anyone can dream and imagine their own future, and all views are valid. Therefore, the future does not belong to those who silently wait for the time to pass but to those who write, draw, and act to make the future they dream of come true. The Guest Cities Exhibition encourages the world's cities to envision a sustainable and resilient future through the inspiration and lessons found in Seoul.

(23)

서울전 Seoul Exhibition

바래

(전진홍, 최윤희)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전 공동 큐레이터

BARE

(Jinhong Jeon, Yunhee Choi)

Co-Curator of Seoul Exhibition,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24)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서울전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직면한 상황과 위기 들이 세계의 다른 도시들, 나아가 지구 전체의 생태계와 순환적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확장된 인식을 모색한다. 따라서, 게스트시티전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마련된 서울전은 하나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서울이 세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는 공동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변화하는 인구, 기술, 환경을 둘러싼 여러 시도들의 공명 속에서 서울의 미래를 상상하고자 한다.

서울전은 서울의 현재 모습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도와 함께, 그린뉴딜 온실가스 감축전략,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구축 등 서울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서울의 시도와 방법은 각각 세계 다른 도시들의 프로젝트와 조응하며 9개의 크고 작은 타워를 통해 다층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9개의 타워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전달함으로써 서울과 게스트시티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교차하고, 다방면으로 공유하는 장치이자 장소가 된다. 전시는 관람자의 시선 외에 드론, 로봇,

The Seoul Exhibition of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explores the expanded awareness of a cyclical link that connects Seoul and its challenges to other cities of the world and to the planetary ecosystem of our Earth as a whole. Organized through productive dialogues with the Guest Cities Exhibition, the Seoul Exhibition presents a collective urban narrative rather than that of a single city to envisage the future of Seoul as illustrated by various projects addressing the changing demographic,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texts.

The exhibition presents Seoul's attempts to react to rapid changes, such as the Green New Deal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y, the construction of a smart mobility system, and more. These strategies each respond respectively to the projects from other global cities and form a multilayered relationship through the nine towers displayed in the exhibition area. The nine towers,

타워 등 사물들의 새로운 시선과 공존을 통해 여러 도시들의 이야기를 교차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커미션 작가들의 작품은 전시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로지르며 새로운 관점으로 서울의 미래를 해석하고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펼쳐지는 서울전은 게스트시티전과 함께 포럼과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도시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을 모으고 확장하려 한다. 보다 폭넓은 소통의 장에서 서울이 당면한 여러 이슈를 재조명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리의 도시에 도래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capable of dynamic movements, serve as a vessel to collect and share the stories of Seoul and the Guest Cities. They display the novel perspectives of objects (drones, robots, and towers) and their coexistence with our human viewpoints to intercross the narratives of the cities. The commissioned artworks, traversing the exhibition area in a multitude of directions, interpret and portray the future of Seoul from various perspectives.

Taking place in the Seoul Hall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the Seoul Exhibition, in conjunction with the Guest Cities Exhibition, assembles and expands the contemporary discourse on our cities through various programs, including forums and lectures. By shedding new light on the issues Seoul is currently facing on a broader platform for communication, the exhibition hope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citizens to envision the future of our city, Seoul.

(25)

세운상가

SEWOON PLAZA



현장 프로젝트

Live Projects

현장 프로젝트 Live Projects

푸하하하 프렌즈
(한승재, 한양규, 윤한진)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 프로젝트 큐레이터

FHHH Friends
(Seung Jae Han, Yang kyu Han, Hanjin Yoon)
Curator of Live Projects,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28)

도시는 점차 넓어지며 점차 높아진다. 그리고 끝없는 개발을 통해 도시는 무한히 확장하며 변화한다. 하루에만 수백, 수천 채의 건물이 철거되고, 지어지고, 수리되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개발과 보존', '자연과 도시', '디지털과 아날로그'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대립적인 단어로 여태껏 단순하게 도시를 정의해왔다. 그래서 도시의 이야기는 개인보다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 프로젝트 전시의 주제인 "의심스러운 발자국"은 도시를 바라보는 거대담론의 틀을 벗어나 개인이 바라보는 지극히 사적인 도시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맨홀 뚜껑을 밟고, 막대기로 벽을 두드리며, 자기만의 규칙과 표식으로 저만의 지도를 만드는 아이들처럼 "의심스러운 발자국"은 대립적이고 보편적인 언어에서 벗어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인적인 도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려 한다.

이를 위해 다섯 명의 문학작가를 초청했다. 그들은 '스케일', 즉 '단위'라는 키워드를 통해 사적인

Cities, as time passes, gradually widen and rise; they expand and transform indefinitely through an endless process of development. To understand the city in which hundreds and thousands of buildings are taken down, built up, and repaired every day, we have defined it in too simple terms, using abstract words in opposition to each other—'development vs. preservation,' 'nature vs. city,' 'digital vs. analog.' To such a degree, the stories of cities have focused on the collective flow of history rather than the individual.

To free ourselves from the macrostructures of historical discourse, the Live Projects Exhibition, as part of the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focuses on the private and intimate stories of the city under the title of "Suspicious Footprints". Just like children stepping on a manhole cover, tapping on a wall with a stick, and drawing their own maps with their own rules and signs, "Suspicious Footprints" aims

도시의 경험을 서술한다. 미터와 킬로미터, 시, 분, 초 등의 보편적인 스케일에서 벗어난 개인만의 스케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 도시 속 삶에서 느끼는 소중함과 절망, 고독함과 행복은 어떤 스케일로 계측할 수 있을까? 다섯 팀의 건축가는 문학작가들이 서술한 사적인 이야기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짓고 방문객이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여 공감의 폭을 넓힌다. 그들이 세운상가와 청계천 일대에 세우는 총 다섯 개의 구조물은 아주 사적인 도시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상상하게 한다.

역사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결코 일방적인 영향은 아니다. 한편으로 개개인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러기에 역사는 개인의 기억의 총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개개인이 경험하는 도시는 모두 다르기에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수만큼 존재할 수 있다.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캐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르게 감각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는 것. 이것은 또다른 도시의 확장이다.

to provide clues of the individual city that we seek—a city that is free from the conventional and conflictual language.

Five writers were invited to compose narratives of their private experience of the city, using 'scale' as the keyword. Is it possible to invent a personal scale beyond the universal one (meter, kilometer, hour, minute, second, etc.)? What scale can we use to measure our gratitude, despair, loneliness, and happiness we feel living in the city? Giving shape to those intimate narratives composed by the writers, five teams of architects build physical sites that allow the audience to have a comprehensive experience with an extended range of empathy. Five structures set up in the area of Sewoon Plaza and Cheonggye Stream enable them to look in and imagine the private city.

Histor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n individual's life, yet it is by no means unilateral. Each and every person is involved

(29)

in making history together; this is why history is often defined as a total collection of individual memories. As the city is perceived and experienced by each individual, it can be said that there are as many cities as its inhabitants. Digging out numerous stories in the city, empathizing with different sensibilities, and discovering their boundless possibilities—these actions result in another kind of expansion of the city.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도미니크 페로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큐레이터
주제전 및 도시전
큐레이터 도미니크 페로
보조 큐레이터 조옥님, 김그린

글로벌 스튜디오
큐레이터 건축공방(심희준, 박수정)

게스트시티전 및 서울전
큐레이터 최춘웅
공동 큐레이터 바래(전진홍, 최윤희)
보조 큐레이터 나가람

현장 프로젝트
큐레이터 푸하하하프렌즈(한승재, 한양규, 윤한진)
보조 큐레이터 윤나라

아카데미 협력 큐레이터 빈센트 안
전시 디자이너 스튜디오 언라벨(이동일 외 3인),
김용주, 홍박사

SBAU2021 General Director
Dominique Perrault

SBAU2021 Curatorial Team
Thematic + Cities Exhibition
Curator Dominique Perrault
Assistant Curator Oknim Jo, Green Kim

Global Studios
Curator Hee Jun Sim, Su Jeong Park

Guest Cities + Seoul Exhibition
Curator Choon Choi
Co-Curator BARE (Jin Hong Jeon, Yunhee Choi)
Assistant Curator Garam Nah

Live Projects
Curator FHHH Friends
Assistant Curator Nara Yoon

Adademic Associate Curator Vincent Ahn
Exhibition Design Studio Unravel,
Youngju Kim, Hong Baksa

학술위원회
미쿠엘 아드리야, 배리 버그돌, 신혜원,
파로크 데라흐샤니, 사라 와이팅, 이윤희, 위니 마스,
존 홍, 안드레아스 루비

그래픽디자인 일상의실천

Scientific Committee
Miquel Adrià, Barry Bergdoll, Haewon Shin,
Farrokh Derakhshani, Sarah M. Whiting, Yoonhie Lee,
Winy Maas, John Hong, Andreas Ruby

Graphic Design Everyday Practice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2021년 9월 16일 – 10월 31일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일대

총감독

도미니크 페로

주제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주최

서울특별시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Date

September 16 – October 31, 2021

Venues

Dongdaemun Design Plaza(DDP)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Sewoon Plaza

General Director

Dominique Perrault

Theme

CROSSROADS, Building the Resilient City

Hos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ww.seoulbiennale.org



MAX : seoulbiennale

